

## 자조금제도 전면시행으로 양돈가 주도의 양돈발전 피할 때



박종수 부회장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1979년의 공급과잉에 따른 큰 가격파동을 경험한 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몇 차례의 단기적인 파동은 있었지만 장기적인 큰 파동이 없이 줄곧 수급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1980년 이후 그간 우리의 양돈산업은 공급이 수요를 주도하면서 나름대로의 호황을 누리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 심상치 않은 공급과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육 방출을 중단하고 동절기 수요가 회복되면 이번의 수급 불균형 현상도 단기적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듯 하다.

우리의 양돈산업이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무리없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기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수요차원에서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동물성 식품의 선호현상에 따라 돼지고기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공급차원에서는 단기적인 가격하락에 적응력이 약한 영세한 양돈 농가가 지속적으로 탈락되었고, 더불어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감과 양돈노동의 열악성 등으로 인해 급속히 규모를 확대하는 농가와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도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의 양돈산업은 큰 장애없이 돼지가 생산된 만큼 팔리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수입해서 수급을 유지해 오는 폐쇄경제의 틀속에서 철저히 보호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공급이 수요

를 창출하고 생산하면 팔리는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보호주의적 폐쇄경제하에서는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주도하는 법이다. 그러나 개방경제하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의 상품구매에 대한 선택 폭이 다양할 뿐더러 이에 대한 공급도 무한하기 때문이다. 고기를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가면 돼지고기도 있고, 쇠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으며, 돼지고기도 국내산 돼지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돼지고기도 있고, 덴마크산 돼지고기도 있고, 대만산 돼지고기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다양한 고기중에서 값싸고 질 좋고 마음에 드는 고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이 개방경제하에서 시장경쟁의 현실이다.

1997년 하반기에 돼지고기의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되면 이러한 열린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미 45일로 결정된 진공포장 냉장육의 잠정유통기한도 내년 7월이면 자유화 된다. 그러나 돼지고기 시장이 활짝 열릴지라도 국내산 돼지고기가 외국산보다 월등히 값싸고 질이 좋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국산 돼지고기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돈업의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차원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안전하고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양돈경영의 환경과 여건상 질적 양적인 경쟁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설령 값싸고 질이 우수하더라도 어떤 고기, 어느 나라산 돼지고기를 사느냐는 것은 최종 소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런데 수입업자를 비롯한 유통업자들은 자기 몫의 유통마진이 높은 수입고기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판촉전략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경영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지 한국산 돼지고기를 많이 파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양돈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무한경쟁시장에서 여하히 시장을 지키고 수요를 확대해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그 시장도 우리 양돈가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을 맞고 있다. 여러 농축산물 가운데 특별히 돼지시장만을 정부가 지켜줄 수도 없을 것이고 유통업자들은 마진이 높고 값싼 외국산을 선호할 것이기 때

문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돼지고기 시장은 이제 양돈가 스스로 지키고 확대해 나가야만 할 때가 온 것이다. 돼지고기 뿐만이 아니다. 쇠고기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우유는 낙농을 경영하는 농가가, 닭고기는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양축농가가 본래의 하던 일을 멈추고 시장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나설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힘도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고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은 구성원을 대신해서 구성원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금이며 이 자금은 양돈농가 스스로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조금제도이다. 이러한 자조금제도는 선진 농업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히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소비촉진에 대한 투자는 매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조금은 특정 이해집단이 그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말



양돈자조금은 양돈농가만이 부담하고 돼지고기의 소비촉진, 새로운 돈육제품의 개발과 보급, 소비자 교육과 조사·연구·홍보 등과 같은 양돈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여러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내는 돈으로 내 산업을 내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자조금 제도이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육류의 국내시장을 방어하고 국내 돼지고기의 유통촉진, 소비촉진 그리고 수출촉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제도가 자조금 제도이다.

하자면 어느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자기가 종사하는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극히 적은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여 해당 상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원활하게 하는데 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자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과는 달리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부담하고 그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에만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돈자조금은 양돈농가만이 부담하고 돼지고기의 소비촉진, 새로운 돈육제품의 개발과 보급, 소비자 교육과 조사·연구·홍보 등과 같은 양

돈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여러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내는 돈으로 내 산업을 내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자조금 제도이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육류의 국내시장을 방어하고 국내 돼지고기의 유통촉진, 소비촉진 그리고 수출촉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제도가 자조금 제도이다.

자조금 제도의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에 제정·공포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생산자 단체의 주관하에 자조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내용으로 보아 자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크게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 래도 이에 근거하여 1992년 하반기부터 양돈협회는 그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자조금사업을 최초로 시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사업은 예상했던 데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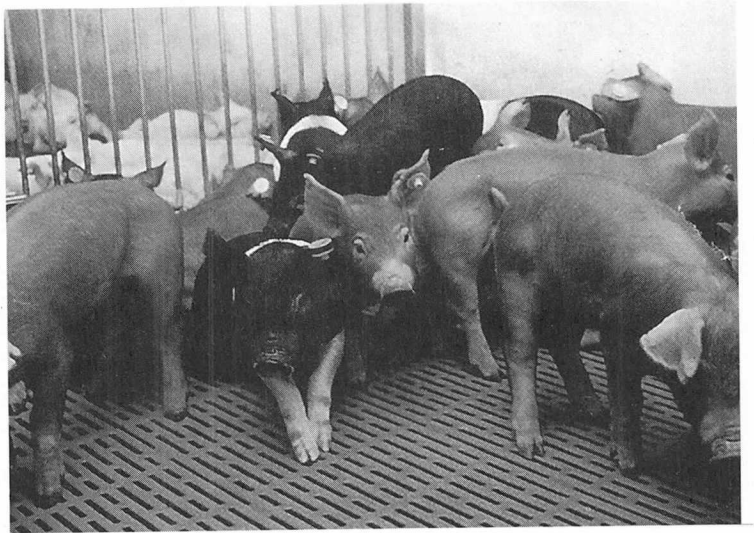
그러나 그 시도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된다. 농업선진국에서도 처음에는 자조금의 자발적인 납부방법에 의해서 자조금 제도를 실시하다가 결국에는 자발적인 납부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의무납부 방법으로 정착시켰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긴박하고 냉랭한 시기에 선진국에서 여러 해를 거쳐 경험한 시행착오, 즉 자진납부 제도는 소극적인 참여와 이로 인한 무임편승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선례를 우리도 꼭 밟아야만 했었느냐는 것이다.

또한 50,000여 양돈 농가운데 3,000여 양돈협회 회원만이 자조금을 납부해가지고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미미할 뿐 아니라, 나머지 비회원은 가만히 앉아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으니(이를 흔히 무임편승이라고 함)그것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모든 양돈가가 함께 참여하여 자조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을 수입축산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도 자조금이 백분 활용되어야 한다. 자조금의 납부는 자칫 농가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짐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니 적정한 소액의 부담으로 그에 상응하는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손실적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안정된 시장이 없이 안정된



생산이 있을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상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상품으로 유통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양돈산업은 돼지고기의 소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되어야만 유통과 생산이 촉진되는 산업이다.

이제 자조금 제도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우리 양돈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차제에 부연한 것은 양돈협회만이 아닌 양돈산업인 모두가 의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양돈 자조금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정부도 무임편승자를 배제하고 의무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시장지향주의적 개방경제에서 돼지고기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선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양돈은 이제 우리 양돈인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는 냉랭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양돈발전은 양돈자 스스로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